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 연구

● 박은숙

민족출판사

이 책은 한국 성균관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이므로 한국어표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 연구

박은숙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日据时期朝鲜族文学研究:朝鲜文 / 朴银淑著. — 北京:
民族出版社, 2007. 12

ISBN 978-7-105-09036-5

I. 日… II. 朴… III. 朝鲜族—小说—文学研究—中国—朝鲜
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4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94919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12月第1版 2007年12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22

字数: 340千字 定价: 29.00元

ISBN 978-7-105-09036-5 / I·1888(朝200)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12월 제1판 2007년 12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 22

자수: 340천자 값: 29.00원

ISBN 978-7-105-09036-5 / I·1888(朝200)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 연구

머리말

해방 전의 중국 조선인 소설을 연구 테마로 잡고 단편적인 연구와 함께 석·박사 학위논문을 완성한 지도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석사학위논문(1999년)에서는 주로 일제 말기 위만주국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인들의 소설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했었고, 박사학위논문(2002년)에서는 그 폭을 좁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그 시기 조선인 작가의 대표적 존재였던 안수길의 만주 체험 소설로 국한시켰다. 학위논문을 쓸 당시에는 제한된 자료와 시간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을 다 연구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당시 위만주국 문단을 형성했던 중국인 작가들의 작품과 당시 지배적 담론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 연구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논문을 끝내고 그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한다 하면서도 허다한 학과 일과 바쁜 강의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늘까지 그 소박한 소망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은 게으른 필자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구실을 찾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관련 영역의 연구자들과 그들의 연구 성과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연구 부진을 자책할 때가 많았다. 한편 서로 다른 견해나 주장들을 충분히 교류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서로의 연구가 더 알차고 풍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했다. 자신의 연구가 더 완벽하기만을 기다리며 교류의 장을 마련하지 않느니 좀

영성하고 미숙하더라도 서로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자신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같은 연구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감히 이 글을 내놓을 용기를 냈다.

해방 전, 즉 위만주국 시기 만주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인들의 문학 활동과 그들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몫이다. 그것은 한국 현대문학의 확대된 영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오늘날 중국 조선족 문학을 탄생시킨 기반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선족 문학의 모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루어졌던 많은 문학적 성과물들을 지금 구독할 수 없거나 영인본 텍스트들이 해독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더해 준다.

근년 래 중국 국내에서 또는 한국에서 일제시기 위만주국이나 중국에서 활동했던 조선 문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이루어졌던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비해 그 연구의 폭이나 질이 한층 향상되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심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가담과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로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필자의 이 연구가 이런 확대되고 심화된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하면서도 소박한 심정이다.

이 책에는 필자가 그동안 고민하고 고심했던 우리 조선족 이민 소설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 있다. 비록 아직 이론적인 체계가 잘 짜여진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나름대로 구성하고자 한 논리적 틀은 거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의 따뜻한 질책과 지도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부록으로 들어간 「일제 말기 재만 조선인 소설 연구」는 필자가 1999년에 한국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안수길의 만주 체험 소설 연구와 직결되는 내용이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그때 완성된 내용을 위주로 별로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수록했다. 다른 부록의 내용인 참고 자료는 안수길 연구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정리해 넣었다. 「안수길 연보」는 안수길의 생애와 창작 생활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수록한 것이다. 비교적 완정하고 상세한 작가 연보일 것이다. 그리고 보충 자료로 작가 안수길의 창작집 및 그 속에 수록된 작품, 장편소설 등을 제시해 놓았다. 안수길 작품 조사와 고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학위논문 완성 후 경기도 남양주 월산리 모란공원에 있는 작가의 묘소를 다녀오면서 찍은 작가의 묘비 사진을 수록했다. 작가 안수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공부하는 일도 혼자만이 아닌 주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필자가 한국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성균관대학교의 조건상 지도 교수님, 고 윤병로 교수님, 송재소 교수님, 인천대학교 오양호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과의 이봉범, 박현수 선배님, 박사 논문 작업 및 심사 시 고락을 같이 한 박지영 학형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을 주신 산동대학교(山東大學) 외국어학원 및 민족출판사 조선문 편집실의 편집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저자

2007년 가을이 짙어 가는 10월
중국의 샘 도시 산둥 제남에서

차 례

제1장 안수길 소설 연구의 개황	1
제1절 안수길 소설 연구의 문제점	1
제2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3
제2장 만주와 안수길 문학의 관계	19
제1절 근대사 전개와 만주	19
제2절 안수길의 만주 체험과 재만 조선인 문학	34
제3장 전기 소설—만주 체험의 즉자적 형상화	66
제1절 만주 조선인 이민 문학의 전개 양상	68
제2절 북향정신과 민족공동체 건설에 대한 열망	119
제4장 후기 소설—만주 체험의 내면화	152
제1절 근대 민족사 전개의 현장—『北間島』	154
제2절 만주 체험의 후일담과 역사적 진실	195
제5장 안수길의 만주 체험 문학의 문학사적 의미	222
부록1 일제 말기 재만 조선인 소설 연구	234
부록2 참고 문헌	322
부록3 안수길 연보	329
부록4 안수길 작품집 수록 작품과 장편소설	336

제1장 안수길 소설 연구의 개황

제1절 안수길 소설 연구의 문제점

이 글은 안수길(安壽吉: 1911. 11. 3~1977. 4. 18)의 만주 체험 문학의 양상과 발전 면모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의 만주 체험 문학의 특징 및 그것의 한국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해 보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안수길은 자신의 근 15년간의 만주 체험 생활을 토대로 하여 만주 이주민들의 삶, 특히는 일제 말기 이주민들의 삶에 대하여 끈질기게 추적하고 형상화하면서 한국 근대사의 비극을 보여 주었다. 안수길의 만주 체험 문학은 다른 작가들의 만주¹⁾를 소재로 한 작품과

1) 滿洲: 원래는 地域 및 民族名이다. 청조 초기 女真人을 지칭하는 민족 名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시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기도 했다. 지역 으로서는 처음에는 오늘의 중국 遼寧省 서부 및 吉林省 산간 지대(遼東 산 지)가 포함되었다. 淸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요동 평원 지역도 포함되고 동부 내몽고 이동, 압록강·두만강 이북, 흑룡강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중엽으로부터 이 지역을 만주리아(Manchuria)라고 불렀다. 국민당 정권 시기는 奉天, 吉林, 黑龍江 3성을 만주라고 부르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만주라는 이름이 폐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부터는 이 지역을 중국 '東北'이라 부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만주라는 명칭을 다만 지역 名으로 限해 사용한다. 일제시기

다르다. 그는 일제시기 재만 조선인 문인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한국 문학이 암흑기에 처해 있을 때 끝까지 한글로 이주민들의 삶을 증언하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만주에서 민족 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안수길은 1935년 『조선문단』 속간 기념 현상 모집에 단편 「赤字病院長」과 콩트 「붉은 목도리」를 함께 당선시키면서 본격적인 창작생활을 시작해 1977년 작고하기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작품들을 남겨 놓았다. 그는 처음부터 리얼리즘에 기초한 창작 방법으로 일제시기 만주에서 펼쳐지는 조선 이주민들의 삶을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근대사의 비극을 형상화하였으며 전후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특히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만주의 대서사시’²⁾라 평가되는 장편소설 『北間島』를 통해 그는 리얼리즘 작가로서의 성숙된 모습 과시와 함께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위대한 리얼리스트들의 시류에 대한 저항(Gegen-den-stron-Schwimmen)은 언제나 매우 구체적이다. 그들은 생활 소재가 지닌 여러 가지 예술 적대적 특징을 예술적으로 극복하여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경향들을, 바로 구체적 생활 소재들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³⁾ 자신의 실제 체험에 기초하여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부각한 안수길의 만주 체험 소설들은 여느 작가들의 만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과는 달리 만주에 대한 관념성이나 추상성 혹은 기이한 상상에서 벗어나 일제시기 조선 이주민들의 수난과 고투의 현장을 생생하고 리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항상 ‘간도 문학’, ‘개척 문학’이라는 판사가 붙어 있었다. 만주

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 이주민들의 만주 이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간도를 포함한 조선 이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했던 東北 3성을 광의의 ‘滿洲’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년, 382쪽.

3) G.루카치 지음, 조정환 옮김.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 동녘, 1986년, 222-223쪽.

2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 연구

체험은 안수길 문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고 안수길 문학의 원천이다. 것처럼 만주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작가도 드물고 그만큼 만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곳 이주민들의 삶을 그린 작가도 없다. 안수길의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의 위치도 이로 말미암아 확고해진다.

안수길은 등단 후부터 作故하기까지의 40여 년간을 줄곧 창작으로 일관하였다. 일생에 있어 생계를 위해 직장을 가진 기간은 전 생애의 3분의 1도 안 될 만큼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일컬어 창작으로 삶을 산 투철한 작가 정신의 소유자라 한다. 제자를 받거나 신인 작가를 추천할 때도 작가로 한평생을 할 수 있는 사람, 작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그는 언제나 작가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초지일관하였으며 어느 시대든 어떤 정치 단체나 조직, 문단 파벌에 가담하지 않고 ‘한 마리의 고고한 학’⁴⁾처럼 ‘선비처럼 무욕과 청빈한 생활’⁵⁾을 하였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셋길로 빠지지 않고 작가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삶을 살다 간 작가로서의 안수길의 문학자적 자세는 문학인들의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수길의 작가로서의 이러한 특이성과 문학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그의 작품에 대한 세밀한 탐독과 작품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표면적인 현상에 더 큰 비중을 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것은 그의 만주 체험을 소재로 한 前期 작품⁶⁾을 ‘滿洲國’ 국책에

4) 유현종, 「孤高했던 鶴」, 『현대문학』, 1977년 7월, 16쪽.

5) 박용숙, 「가난 속에 꽃피운 산문정신」, 『작가연구』 1996년, 제2호, 새미, 159쪽.

6) 본 논문에서는 안수길의 작품에서 만주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안수길이 만주에서 창작하고 그곳에서 발표한 작품은 前期 작품으로 보고 광복 후 越南하여 만주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을 後期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만주 체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前期와 後期の 시간적 거리와 이로 인한 작가 정신의 성숙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부응한 ‘만주국 국책문학’으로 일축하고 당시 조선 국내 작가들의 친일 경향과 ‘오십 보 백 보’의 차이라고 판단하면서 그것과 동일시하려는 왜곡된 시각에 따른 부작용의 결과다. 그 시기 만주에서의 조선인 문인들의 문학 활동에 대하여 다만 ‘滿洲國’ 통치 하에서의 문인들의 활동, 조선 국내의 중앙 문단과 교류가 거의 없는 간도 벽지에서의 신진 작가들의 창작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며 그들의 창작 활동을 평가절하하거나 한국 근대문학의 아류로 과소평가하려는 경향 또한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중앙 문단이라 칭하는 서울 문단과 이를 추종하는 문인들의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수길의 만주 체험 소설에 대한 연구는 작가 안수길의 한국 문학사적 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문학 활동의 위상과 의미를 밝히고 한국 근대문학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는 안수길이 10여 년간 만주에서 생활하면서 일제 말기 만주에서 조선인 문단의 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동시에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많은 작품을 창작 발표하면서 재만 조선인 작가의 대표적인 존재로 부상한 것과 직결된다. 일제 말기 조선에서 살길을 찾아 남부여 대하고 찾아간 만주에서 조선인들의 삶은 어떠했으며 이에 재만 조선인 작가들의 문학적 대응은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또한 한국 현대문학사의 전면적이고 확대된 기술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일제 말기 한국 문학사는 정말로 기존 문학사에서 기술한 대로 암흑기, 공백기이었던가를⁷⁾ 다시 검증해 보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현재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문학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길의 작품에 대한 연구, 특히는 그의 만주 체험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7)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68년, 558쪽.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성문각, 1997년(12판), 586쪽.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객관성을 결여한 채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선행된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문학사적 고찰, 일반 논문 및 학위는 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학사에서의 안수길 작품에 대한 고찰을 보면 주로 그의 대표작인 『北間島』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윤식과 김현은 『北間島』를 “안수길 혹은 만주의 대서사시”⁸⁾라고 하면서 이 작품의 주제는 땅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과 강렬한 민족의식이라 하였다.

이재선은 『北間島』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당대 한국 문학에서 역사 소설의 한 획을 긋고 있다”⁹⁾고 하면서 前期 작품과 『北間島』를 비교하여 땅과 민족 교육 문제에서의 작가의 의식의 변화를 지적하고 민족의 근대-현대사에 대한 의지와 통찰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작품의 유기적인 연계가 흐트러진 점과 인물 또는 가계의 성격적인 연계가 부권적인 위계의 상호 접속으로 이루어지고 도식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역사관 자체를 단순화하고 기계적이게 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김윤식과 정호웅은 북간도에 이주한 세 집안의 4대에 걸치는 가족사를 통해 한민족의 생존 방식을 탐구하고 그 역사를 재구한 5부작의 대작으로 “민족 문학의 가장 확실한 거점의 하나”¹⁰⁾라고 평가했다.

권영민은 『北間島』가 한국의 농민들이 지니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과 그 저류에 흐르고 있는 민족의식을 대하적인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식민지시대 민족사의 또 다른 면모를 소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대하적 장편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¹¹⁾고 평하고 있다.

8) 김윤식·김현, 위 책, 382-389쪽.

9)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1945~1990)』, 민음사, 1991년, 329쪽.

10)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년, 378쪽.

1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년, 149쪽.

안수길의 『北間島』에 대한 문학사에서의 고찰은 민족 문학이라는 긍정적 의미 부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안수길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위의 연구자들은 이 장편소설의 작품 구성을 비롯한 형식적 특징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으로 표현된 민족의식의 표출이라는 내용적 면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박경리, 황석영 등 작가들의 대하장편소설의 출현을 위한 전 단계 작업이었다는 의미 부여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의 前期 만주 체험 작품에 대한 고찰을 동반하지 않아 만주 체험 작품에서 보이는 작가의 인식 변화와 역사 의식 성숙 과정에 대한 규명은 결여되어 있다. 이는 단편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도 있지만 안수길이라는 작가의 특이성과 작가가 『北間島』를 창작한 동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北間島』에 관한 일반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백철은 『北間島』가 “사실에 토대한 또 하나의 리얼리즘 문학”¹²⁾이라고 평가하였고 최일수는 『北間島』를 두고 안수길의 “작품 계열 가운데서 독특하리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이”며 또한 “신사실주의 정신이 그 내면에 하나의 사상적인 밑받침으로 흐르고 있음”¹³⁾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백낙청은 “젊은 세대의 자만스런 허무주의나 많은 선배의 피곤한 허무주의 틈에서 오히려 청신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¹⁴⁾이라고 말함으로써 앞의 연구자들과 같이 『北間島』의 리얼리즘적 성과를 긍정하고 그것의 시대적 의미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의 단편적인 고찰들은 이 작품이 발표된 직후의 짧은 서평으로서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동반하지 않은 한 편의 독후감이나 감상 정도에 그치고 있다.

12) 백철, 「또 하나의 리얼리즘」, 『사상계』, 1959년 5월, 331쪽.

13) 최일수, 『사상계』, 1959년 5월, 329쪽.

14) 백낙청, 「스케일이 큰 민족사의 기록」, 『東亞日報』, 1967년 10월 28쪽.

김우창은 『北間島』의 민족적 주체성 논의에 대한 기여를 지적¹⁵⁾ 하였고 신동한은 “『北間島』는 우리나라 민족 문학의 하나의 초석”이라고 하면서 이 작품의 민족 문학적 성격과 그 의미를 높이 평하였으며 한기형은 『北間島』의 주제는 “민족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드러내는 사실성의 설득력 결여와 역사 사실이 인물들의 성격을 압도한 나머지 인물의 성격이 살아나지 못함을 한계점으로 지적¹⁶⁾하였다. 그리고 이주형은 이 작품이 만주에서의 민족 문제를 작품 전체를 통해 사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1950년대 말로부터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출현한 작품이라는 점 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작품이 ‘滿洲國’ 시기 이주민들의 생활을 누락하고 있는 점, 인물 전형성의 문제, 화자의 역사 강담사 같은 서술 기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¹⁷⁾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논문들은 비교적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北間島』를 분석하고 만주 조선 이주민들의 삶을 증언한 민족 문학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北間島』 한 편의 작품에만 국한하다 보니 안수길의 만주 체험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작가의 만주 체험 작품의 특징 및 작가의 의식 변화에 대한 추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안수길의 前期 만주 체험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吳養鎬는 안수길의 前期 만주 체험 작품에 주목하면서 그의 간도 이민 소설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짐으로써 설득력을

15) 김우창, 「민족주체성의 의미」,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89년, 196-197쪽.

16) 한기형, 「역사의 소설화와 리얼리즘」, 조건상,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년, 147쪽.

17) 한기형, 「역사의 소설화와 리얼리즘」, 조건상,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년, 147쪽.

획득하고 “당대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의 지향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¹⁸⁾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수길과 더불어 일제시기 만주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작품과 그 배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일제시기 암흑기의 한국 문학사는 응당 간도를 중심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다.

채훈¹⁹⁾은 일제 말기 만주에서 진행된 조선 문인들의 작품들을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함께 소개했다. 안수길의 작품을 두고는 만주의 농촌과 이주 농민에서 취제한 작품을 들어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과 중국 관련 및 현지인들과의 갈등, 나아가 ‘滿洲國’ 건국 정신 등을 반영하여 일부 작품들을 농민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만주의 도시와 도시 거주 이주민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가의 현실 인식의 자세와 농민 문학 문제 논의를 과제로 남긴다고 하고 있다.

민현기는 안수길의 前期 작품은 일제시기 친일 문학의 독성에 깊이 침윤된 대부분의 조선 국내 문인들의 작품과는 달리 비교적 건실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소위 암흑기 한국 문학사의 공백을 채워 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삶과 문학의 不可分性を 통해서 통찰하는 데도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²⁰⁾고 평가하고 있다.

전성호는 안수길의 前期 소설이 이주민들의 수난의 역사를 심도 있고 리얼하게 형상화하여 그의 “後期 대작 창작의 밑거름”²¹⁾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안수길의 그 시대의 현실에 대한 투철

18)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년, 65쪽. 『일제 강점기 만주 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년.

19)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 문학연구』, 깊은 샘, 1990년, 77쪽.

20) 민현기, 「안수길의 초기소설과 간도체험」, 『한국 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 지성사, 1989년, 325쪽.

21) 전성호, 『중국 조선족 문학 예술사 연구』, 이화, 1997년, 316-317쪽.